

Act for SEA!

- 1 **자치단체명:** 도야마현 나메리카와고등학교 해양클럽
- 2 **발표자명 (소속명) 발표:** 데라니시 유즈카, 나카지마 마미, 마츠바야시 레나
PC 조작: 구라모토 쇼카(전원 해양과 2학년)
- 3 **활동명 :** Act for SEA!
(1)해안 클린업활동(2)송어방류(3)거머리말 심기활동(다이빙활동)(4)식림활동
- 4 **활동기간 :** (1) 2003년부터 매년실시 (2) 4월,6월,9월 (3) 9월 (4) 6월
- 5 **활동장소 :** 나메리카와시 다카츠키해안 ((1) (3)), 가미이치강 ((1) (2)), 나메리카와시 및 우오즈시 (4)
- 6 **활동참가인원 :** 연간 총 100명 정도, 1회당 최대 40명
- 7 **활동을 시작한 경위:** 학습활동의 일환으로 교외에서의 지역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목적으로 해양클럽 회측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 8 **발표요지**

(1) 해양클린업 활동

전국 클린업 사무국의 방식에 따라 2003년부터 매년봄과 가을에 해안 표착쓰레기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표착 쓰레기는 「가벼운 재질의 생활쓰레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최근 연간 회수한 쓰레기양의 합계는 감소경향에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많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2) 송어방류

현내에서는 멸종위기종이 된 송어의 치어를 2007년부터 방류하고 있다. 그때부터 누적방류 치어수는 1만마리를 넘는다(2015년) 실습시설은 성어까지의 양식이 가능하고 특산물 「마스즈시(송어누름 초밥)」의 제조에도 도전하고 있다.

(3) 거머리말 심기활동 (다이빙활동)

2007년부터 다이빙 자격을 가진 해양과 학생들이 수조에서 육성한 해초류인 거머리말을 심고 있다. 도야마만 동부연안은 주기적으로 바다가 거칠어지기 때문에 거머리말을 정착시키는 도전은 일진일퇴다. 최근 주변을 둘러싸는 블럭설치나 식해(食害)를 끼치는 조개류 제거등의 노력도 시도하고 있다.

(4) 식림활동

2009년부터 우오즈 어업협동조합에서 힘을 쏟고 있는 식림활동에 참가했다. 2013년에는 도야마현 「숲의 제전」이 나메리카와시에서 개최되어 화제의 무화분 삼나무 「다테야마모리의 가가야키」를 식수하는 등 풍요로운 바다 만들기의 다면적 활동의 특징이 되고 있다.

